

인간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관련 국내연구의 내용분석 (1977년-2012년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주 은 선

김 혜 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상담학연구, 한국정신치료학회지 등), 석·박사학위논문에 1977년부터 2012년까지 35년간 게재된 인간중심접근 논문 총163편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년도 별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하여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주제에 있어서 이론연구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과연구와 개관연구, 성격 및 적응연구 그리고 과정연구, 학업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대상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인 기타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56%가 문헌고찰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었으며, 28%를 차지한 양적연구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년도 별에 있어서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55%의 연구물들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 그리고 상담심리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간중심접근, 내용분석, 경향성, 상담심리학

* 본 연구는 2012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김혜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서울시 도봉구 근화교길 19
Tel: 02-901-8301, E-mail: labella32@duksung.ac.kr

인간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분야를 포함한 심리학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1940년 칼 로저스(1902-1987)에 의해 창시된 인간중심 접근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관계를 중시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보고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와 가정의 위기를 비롯하여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중심접근은 위로가 되고 밝은 사회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주찬순, 2006). 또한 인간중심접근은 교육계나 상담학계는 물론 기업, 교육, 집단, 부부 및 자녀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윤혜성, 주은선, 2010).

현대에 오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기계적인데 반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중심접근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실한 만남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접근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87년 로저스가 사망한 이후 post Rogerian들에 의해 출간된 인간중심 문헌의 양을 통해 첫 번째로 드러난다. 로저스 이론의 작업 흐름은 인간중심접근을 다루는 전문적인 조직, 교육기관, 학술지의 수로도 판단할 수 있고, 치료 결과에 대한 최근 연구, 공통적인

사실, 작업 동맹, 치료적 관계 등은 효과적인 심리치료의 중요한 요소인 로저스의 핵심 조건들 즉,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일치성 등으로 입증(Duam & Hill, 1996; Howard & April, 2005; Jason, Isbel, Kimberley & Oliver, 2007)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로저스의 핵심 조건들이 척도로 개발되었고, 이를 한국에서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역시 1958년 인간중심접근이 처음 한국에 소개된 이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많은 논문(김성광, 1974; 윤호균, 1982; 이영희, 1997; 주은선 등, 2007)과 이론서(한승호, 1963; 이정명 등, 2007; 오제은, 2007; 주은선, 2009)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번역서로는 1963년 한승호를 시작으로, 1974년에 김성광의 석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약 50년간 한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담 이론으로 인정, 활용되어 왔다. 인간중심접근은 현재 정신분석적 접근, 인지 행동적 접근과 더불어 3대 주 이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창립된 한국로저스상담학회(2012년에 한국인간중심상담학회로 명칭 변경)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와 참 만남 집단(encounter group) 또는 감수성훈련으로 현장중심의 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접근의 활성화와 함께 인간중심상담과 관련된 연구들도 학문적, 실천적 발전을 위해 활성화되어 지난 수년간 연구된 논문들은 거의 163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중심접근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내의 연구자나 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 전공자들에게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인간중심접근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이장호(1995)는 한국 심리학에서의 인간중심접근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상담이론으로 인정받으며 활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인간중심접근이 심리학 개념의 복잡성에서 이념 및 하위개념 구조의 명료화와 체계적인 기술의 필요성 등 한국에서 인간중심접근이 당면한 과제라고 논의하였다. 윤호균(1982)은 인간중심접근을 정신분석과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와 그 해결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또한 한국적 인간중심 상담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2007), 국제적 맥락에서의 인간중심 교육과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주은선, 2012).

최근 상담분야에서는 연구들의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하는 분석방법을 의미하며, 연구자에 따라 주제 분석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주제 분석을 통일하여 내용분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상담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들이 어떤 주제, 내용,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 경향성을 검토하거나(김계현, 이재규, 2001), 내용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발전, 성장하여 왔는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성희, 2002). 이는 학자들의 관심과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핵심적인 가치, 이슈 그리고 시대정신도 반영되어지며, 그 학문의 정체성의 근거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내리고 있는지도 통찰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 분야에서의 연구에 대한 이론은 그 분야의 학문적 경향이나 시각의 흐름과 연구 성과의 진척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미 시행된 연구 결과에 관한 고찰은 그 분

야의 연구에 관한 역사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James, 1985) 있다. 연구문헌에 대한 주기적인 고찰은 현재의 쟁점에 관한 안목을 줄 수 있으며(Codding, 1987), 연구에 관한 체계적인 재고는 그 분야의 평가와 연구,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장래에 하게 될 우선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Jellison, 2000) 연구본문의 경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한 핵심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박종민, 2006), 관련 영역들을 규정하고 영역들에 대한 학술적 이론과 연구결과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이에 연구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얻고, 향후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연구주제에 대한 파악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은 인간중심접근의 내용분석을 알아보고자 하다.

심리학의 학문적 자기성찰 활동의 하나로 미국의 대표적인 학회지인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의 1973년부터 1988년까지 26년간 45권에 발표된 2027편의 연구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볼 수 있다(Buboltz, 1999). 그리고 이보다 앞서 Robinson(1970), Munley(1974)은 같은 학회지에 연구 경향성 분석연구를 발표했다. 학자에 따라 내용분석의 정의도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무엇을 분석하는가에 대한 그 대상물과 무엇과 관련하여 내용의 어떤 속성이나 측면을 분석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대상의 내용에 대한 접근 내지 분석방법의 특징들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기록물이 내용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동기,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

적으로 추리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서,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접근을 통해 귀납적 일반화를 시도하거나 가설검증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객관적 분석범주들을 가져야 체계적 부호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김경동, 이은죽, 1986: 320-321). 또한 순수한 기술적 연구보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Holsti, 1969; 홍두승, 1987),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연구대상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때 직접적인 분석방법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홍두승, 198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간중심접근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7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 35년 동안, 국내 인간중심 접근 연구 성과물 전반에 관한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발표된 인간중심 관련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하여 인간중심접근에서 어떤 특성의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내에서 연구된 인간중심이론 영역 논문들의 흐름과 주요 유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7년에서 2012년까지의 국내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해 인간중심접근 연구 경향분석을 실시하여, 인간중심접근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정리해보고,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중심접근의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향후 인간중심접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탐구가 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중심접근 연구의 주제별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간중심접근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셋째, 인간중심 접근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넷째,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년도 별 추이는 어떠한가?

방 법

대상 및 선정

본 연구는 국내 인간중심접근 연구물이 처음 출간된 197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 상담학연구, 한국정신치료학회지 등) 논문 총163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주제와 대상 그리고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들은 논문검색 DB로 국회전자도서관과 RISS4U,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서 “인간중심상담”, “내담자중심상담”, “사람중심상담”, “인본주의 상담”, “Carl Rogers” “감수성훈련” “참만남집단” 주제어로 인간중심 관련 연구물들을 검색하였다.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자료는 논문 소장 도서관으로 의뢰하여 A대학교 도서관이 받아 보 관한 것을 방문하여 수집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여 직접 다운을 받은 것으로 총 16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과정에서 학위논문이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어 중복된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논문들의 초록부분이 없는 경우 서론부분으로 대체하고, 방법 그리고 결론을 검토하여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수

년도	77	78	82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9
학위논문	1	1	1	1		1	1	4	6	2	1	2	4	5	1	4
학술지		1	3	1	2			2	1		4	3	5	3	2	1
총계	1	2	4	2	2	1	1	6	7	2	5	5	9	8	3	5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학위논문	5	9	6	12	5	4	6	12	8	5	6	2	2	117
학술지		3	3	1	2	2	1	1	2	1	1		1	46
총계	5	12	9	13	7	6	7	13	10	6	7	2	3	16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인간중심접근 연구의 주제와 연구대상의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수집된 논문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논문의 초록과 연구방법 및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출판년도, 학위종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으로 분석범주를 정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은 Buboltz 등(1999)이 1973년부터 1998년까지의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CP)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을 채택하였다. 사용한 기준을 채택한 후에 주제별, 연구대상별 세부 분류기준 결정을 위하여 연구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 내용분석을 위한 평정은 본 연구의 연구자 2명과 상담 전공 석사과정 4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 2차는 석사과정 4명의 평정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3차는 본 연구의 연구자 2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정자간의 불일치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 결정하였다. 범주별로 빈도와 백분을 그리고 연구대

상에 따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교차분석을 구하고, 각 범주별 경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주제 분류범주

연구주제는 Buboltz, Miller & Williams(1999), 이동혁과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조남정(2010), 김계원 등(2011)의 분류범주를 근거하여 11개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 분류범주

Buboltz 등(1999)은 상담관련 연구대상을 15개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동혁과 유성경(2000)도 Buboltz의 분류범주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김계원 등(2011)은 상담관련 연구대상을 15개 범주로 분류는 하였으나 대상을 발달단계별, 내담자 특성, 소속집단에 따라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분류기준은 경험적인 연구에 사용된 것이었고,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이론적 경향성으로 인해 국내 연구동향을 참고하여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포함시키지 않거나, 두 개의 분류기준을 통합하거나

표 2. 연구주제 분류범주

연구주제 분류범주	내용
성과연구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구체적 개입이나 개입절차들이 내담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
과정연구	상담회기 내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탐구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로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 언어를 포함한 그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 및 그들의 모든 내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성과-과정연구	상담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요소들이 상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는 연구.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상담자 교육 과정이나 수퍼비전 또는 상담 교육장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와 상담자 교육을 위한 내용 연구.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상담자가 아닌 외부에서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나 지각 양식 등에 대한 연구.
성격 및 적응연구	성격문제나 정신질환 등, 각종 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족이나 조직의 적응문제도 성격 및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학업연구	학업문제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학업과 관련된 검사나 평가 도구의 개발 연구는 평가 및 검사 개발 연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된 검사나 평가도구 개발은 척도 개발연구,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는 성과연구로 분류.
진로 및 적성연구	진로결정이나 진로행동 등,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진로 및 적성에 관련된 검사나 평가도구 개발은 척도개발연구, 진로 및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는 성과연구로 분류.
개관연구	한 주제와 관련하여 관련된 기존의 상담학 연구들을 개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이론연구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할 뿐 아니라, 연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사례연구를 하였지만 내용상 이론적 연구를 주로 한 경우로서, 사례연구에 대한 과학적 절차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연구.
기타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연구가 이에 해당.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 분류를 위한 14개 범주의 세부 분류 기준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질적 혼합연구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문헌고찰은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이미 발표된 논문, 학술 잡지, 서적 등의 문헌 자료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연구수행에 기반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양적연구는 자료 수집을 생리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변

표 3. 연구대상 분류범주

연구대상 분류범주	내용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14세에서 19세 이하인 청소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성인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
심리적 문제를 지닌 성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신체적 문제를 지닌 성인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부부 및 가족	혈연이나 결혼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람들.
상담자	상담자 교육을 받는 대학원생, 상담 수련생, 상담전문가,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내담자	상담기관, 일반상담소, 병원, 학교 등에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
군인	군대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 등.
유교	인(仁)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으로 노자, 장자, 퇴계 등.
불교	불타(佛陀)가 설교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로 육조해능 등.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 아담스, 페니베이커, 평신도 등.
기타	위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이 범주에 속한다. 또한 초록을 통해 연구 대상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타로 분류.

수를 객관적, 수량적으로 측정하며, 대상자를 객관화시킨 후 통계적 확률에 의해 가설검정을 한 후 통계적 언어를 사용하여 진술한다. 질적연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초점을 두고 검사, 관찰, 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그 사례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연구주제, 연구대상, 접근방법의 경향성 분석 그리고 연구년도 별 경향

성 분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분석을 했다. 첫째, 연구주제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각 연구주제별 빈도분석과 연구주제의 연도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각 연구대상별 빈도분석과 연구대상의 연도별 및 연구주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각 연구방

범 별 빈도분석과 연구방법의 연도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년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각각 연구년도 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류범주에 대한 평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분류범주에 점수를 부여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Buboltz 등, 1999). 예를 들면 한 개의 분류범주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류범주에 1점을 부여하고, 두 개의 분류범주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류범주에 각각 0.5점씩을 부여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분석결과, 163편의 연구에서 얻어진 인간중심접근 연구주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그 결과, 표 4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이론연구에 관한 연구이며, 그 비율은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연구 19%, 개관연구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주제에 관한 연구가 총 연구물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 세 주제 이외의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 및 적응연구, 과정연구, 학업연구,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성과-과정연구 등으로 전체 논문 수의 40% 미만이며, 각각 9% 이하로 나타나 그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를 분석한 자료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이론에 관한 연구이며,

표 4. 인간중심접근의 연구주제(N=163)

연구주제	빈도	비율%
성과연구	31	19
과정연구	14	8
성과-과정연구	6	4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5	3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8	5
성격 및 적응연구	15	9
학업연구	10	6
진로 및 적성연구	2	1
개관연구	19	12
이론연구	48	29
기타	5	3
전체	163	100

그 비율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18% 성과연구, 12%의 개관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 및 적성,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기타 등의 주제는 그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대상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기타가 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에 있어 이론연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필요하지 않거나 연구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막연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17%),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13%), 청소년(13%)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심리적 문제를 지닌 성인, 내담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에 관한 분석은 표 7

표 5.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N=163)

연구주제 연도	성과	과정	성과/ 과정	상담자 훈련	상담자/ 지각	성격/ 적응	학업	진료/ 적성	개관	이론	기타	전체
77-82		1(14.3)							1(14.3)	4(57.1)	1(14.3)	7(100)
86-88									1(20.0)	4(80.0)		5(100)
89-91	2(13.3)	2(13.3)		2(13.3)					3(20.0)	5(33.3)	1(6.7)	15(100)
92-94	2(16.7)	1(8.3)		1(8.3)					4(33.3)	4(33.3)		12(100)
95-97	3(15.0)		2(10.0)	1(5.0)	1(5.0)				5(25.0)	7(35.0)	1(5.0)	20(100)
99-01	4(19.0)		1(4.8)	2(9.5)	1(4.8)		1(4.8)		2(9.5)	10(47.6)		21(100)
02-04	8(27.6)	2(6.9)		2(6.9)	1(3.4)	2(6.9)	4(13.8)	1(3.4)	2(6.9)	7(24.1)		29(100)
05-07	3(11.5)	5(19.2)	3(11.5)		1(3.8)	7(26.9)	4(15.4)	1(3.8)		1(3.8)	1(3.8)	26(100)
08-12	8(28.6)	2(7.1)	1(3.6)	1(3.6)		6(21.4)	1(3.6)		1(3.6)	7(25.0)	1(3.6)	28(100)
계	30(18.4)	13(8.0)	7(4.3)	9(5.5)	4(2.4)	15(9.2)	10(6.1)	2(1.2)	19(11.6)	49(30.1)	5(3.1)	163(100)

표 6. 인간중심접근의 연구대상(N=163)

연구대상	빈도	비율%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22	13
청소년	21	13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2
성인	12	7
심리적 문제를 지닌 성인	2	1
신체적 문제를 지닌 성인	3	2
부부 및 가족	3	2
상담자	4	2
내담자	1	1
군인	1	1
유학자	8	5
불교인	5	3
기독교인	28	17
기타	49	30
전체	163	100

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대상이 없는 연구 즉 기타가 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 17%, 취학전 or 초등 13%, 청소년 13% 이외의 대상자에 관한 연구는 8%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내담자, 군인에 관한 연구는 1%이하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신체적 문제를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전체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는 이론연구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과연구(19%), 개관연구(12%), 성격 및 적응연구(9%), 과정연구(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대상 별 연구주제 분석에서 나타났으나 대상이 없는 기타 연구에서는 이론연구(41%), 개관연구(31%), 과정연구(10%),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6%)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성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학 전

표 7.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N=163)

대상 연도	취학전, 초등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	성인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부부, 가족	상담자	내담자	군인	유학자	불교인	기독교	기타	전체
77-82										1 (14.3)	1 (14.3)	2 (28.6)		3 (42.8)	7 (100)
86-88														5 (100)	5 (100)
89-91	2 (14.3)	1 (7.1)							1 (7.1)		1 (7.1)	1 (14.3)	2 (42.8)	6 (42.8)	14 (100)
92-94	1 (8.3)	2 (16.7)					1 (8.3)				1 (8.3)	1 (8.3)	6 (50.0)	6 (50.0)	12 (100)
95-97		1 (5.0)		1 (5.0)								5 (25.0)	13 (65.0)	20 (100)	
99-01	2 (9.1)	3 (13.6)									2 (9.1)	8 (36.4)	7 (31.8)	22 (100)	
02-04	3 (10.3)	5 (17.2)	1 (3.4)	3 (10.3)	1 (3.4)		1 (3.4)	1 (3.4)			2 (6.9)	1 (3.4)	5 (17.2)	6 (20.7)	29 (100)
05-07	8 (31.0)	4 (15.4)	2 (7.7)	6 (23.1)		2 (7.7)		2 (7.7)				1 (3.8)	1 (3.8)	26 (100)	
08-12	6 (21.4)	5 (17.8)	1 (3.6)	2 (7.1)	1 (3.6)	1 (3.6)	1 (3.6)	1 (3.6)			1 (3.6)	1 (3.6)	6 (21.4)	2 (7.1)	28 (100)
계	22 (13.5)	21 (12.9)	4 (2.4)	12 (7.4)	2 (1.2)	3 (1.8)	3 (1.8)	4 (2.4)	1 (0.6)	1 (0.6)	8 (4.9)	5 (3.1)	28 (17.2)	49 (30.1)	163 (100)

아동 및 초등학교, 신체적 문제를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과연구가 각각 75%, 50%, 41%, 33%,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론연구가 46%, 그리고 유학자, 불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론연구가 각각 87%, 8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간중심접근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를 살펴보면, 문헌고찰이 56%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었고, 양적연구가 28% 그리고 질적연구가 16%, 양·질적 혼합연구가 1%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현재 인간중심접근의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나 양·질적 혼합연구 보다는 문헌고찰이나 양적연구 방법을 많이 수

용하고 있고, 어떤 인물의 인간관, 철학관, 이론적용, 이론비교 등을 다룬 문헌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문헌고찰이 56%, 양적연구가 26%, 질적연구가 16%, 양·질적연구가 2%를 차지하고 있어 문헌고찰이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문헌고찰은 97년까지 80%를 보이다가 99년 이후 조금씩 비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2008년부터 높아지고 있다. 또한 99년부터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질적연구가 서서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에 따른 학위논문과 학술지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다. 그

표 8.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주제(N=163)

연구주제 연구대상	성과	과정	성과/ 과정	상담자 훈련	상담자/ 지각	성격/ 적응	학업	진료/ 적성	개관	이론	기타	전체
취학전, 초등	9 (41.0)	1 (4.5)				7 (31.8)	5 (22.7)					22 (100)
청소년	4 (19.0)	2 (9.5)	1 (4.8)			4 (19.0)	4 (19.0)	2 (9.5)	1 (4.8)	3 (14.3)		21 (100)
대학생, 대학원	2 (50.0)	2 (50.0)										4 (100)
성인	9 (75.0)	2 (16.7)	1 (8.3)									12 (100)
심리적 문제						2 (100)						2 (100)
신체적 문제	1 (33.3)	1 (33.3)				1 (33.3)						3 (100)
부부, 가족		1 (33.3)				1 (33.3)				1 (33.3)		3 (100)
상담자				1 (25.0)	1 (25.0)						2 (50.0)	4 (100)
내담자					1 (100)							1 (100)
군인											1 (100)	1 (100)
유학자				1 (12.5)						7 (87.5)		8 (100)
불교인					1 (20)					4 (80)		5 (100)
기독교인	4 (14.3)		3 (10.7)	2 (7.1)	2 (7.1)				3 (10.7)	13 (46.4)	1 (3.6)	28 (100)
기타	2 (4.1)	5 (10.2)	1 (2.0)	1 (2.0)	3 (6.1)		1 (2.0)		15 (30.6)	20 (40.8)	1 (2.0)	49 (100)
계	31 (19.0)	14 (8.6)	6 (3.7)	5 (3.1)	8 (4.9)	15 (9.2)	10 (6.1)	2 (1.2)	19 (11.6)	48 (29.4)	5 (3.1)	163 (100)

표 9. 인간중심접근의 연구방법(N=163)

연구방법	빈도	비율%
문헌고찰	91	56
양적연구	45	28
질적연구	26	16
양·질적연구	1	1
합계	163	100

결과를 보면, 첫째, 총 논문 수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90년대부터 논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 논문의 경우 90년대의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내에서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는 90년대를 기점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

표 10. 연도에 따른 연구방법(N=163)

방법 연도	문헌고찰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 질적연구	전체
77-82	6(86.0)			1(14.3)	7(100)
86-88	5(100)				5(100)
89-91	10(71.4)			4(28.6)	14(100)
92-94	10(83.3)			2(16.7)	12(100)
95-97	16(80.0)			4(20.0)	20(100)
99-01	13(59.1)	1(4.5)		8(36.4)	22(100)
02-04	14(48.3)		3(10.3)	12(41.4)	29(100)
05-07	2(7.7)	1(3.8)	17(65.4)	6(23.1)	26(100)
08-12	15(53.6)	1(3.6)	6(21.4)	6(21.4)	28(100)
계	91(55.8)	3(1.8)	26(15.9)	43(26.4)	163(100)

표 11. 연도 별 학위논문과 학술지(N=163)

년도 별	학위논문	비율%	학술지	비율%	계(%)
1970년대	2	3	1	3	3(1.8)
1980년대	3	4	7	15	10(6.1)
1990년대	29	25	21	48	50(30.7)
2000년대	74	58	15	33	89(54.6)
2010년대	9	10	2	3	11(6.7)
합계	117	100	46	100	163(100)

타내고 있다. 둘째,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주제가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90년대에는 타 상담이론과의 비교고찰에 관한 논문들이 많았다면 2000년대는 상담에 적용하는 상담실체에 관한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여진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인물의 인간관과 철학관에 관한 연구 비율이 늘어나는 90년대에 반해 2000년대는 학위논문과 같은 상담에 적용하는

상담실체에 관한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표 11 참조).

이러한 경향성을 그림 1을 참조해서 보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위논문에서는 이론연구가 30%, 성과연구가 25%, 성격 및 적성연구가 12%로 학위논문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과정연구, 학업연구가 각각 7%, 성과-과정연구, 개관가 각각 4%,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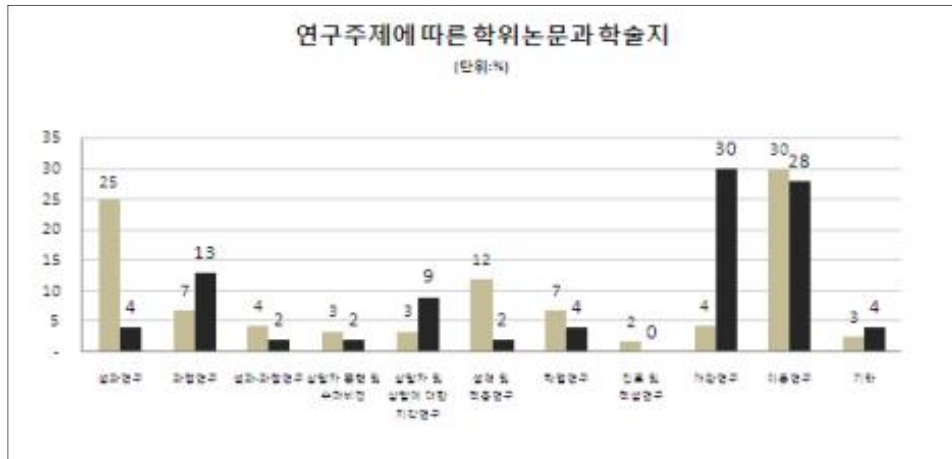


그림 1. 인간중심이론의 연구주제에 따른 학위논문과 학술지(N=163)

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 기타가 각각 3%, 진로 및 적성 연구가 2%로 그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논문에서는 개관연구가 30%, 이론연구가 28%, 과정연구가 13%로 학술지논문의 7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연구가 9%, 성과연구, 학업연구, 기타가 각각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 이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과는 달리 개관연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성과연구(25%)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학술지의 경우 개관연구(30%)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에서 연구주제의 편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지난 35년간 실시

된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탐색해 봄으로써 인간중심이론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향후 인간중심접근 연구의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163편의 인간중심접근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의 경향성, 연구년도 별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기준으로는 Buboltz 등(1999), 이동혁과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조남정(2010), 김계원 등(2011)이 사용한 연구주제, 연구대상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연구주제의 경우에는 이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으나 점차 성과연구, 개관연구에 관한 연구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의 경우, 대상이 없는 기타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으며, 점차 기독교, 취학전이나 초등학생, 청소년에 관한 연구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문헌고찰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으나, 점차 양적연구에 관

한 연구 비율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도 별 추이는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학위논문에서 두드러지게 연구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에서 점차 상담실제에 관한 연구물들이 많아짐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가 학회와 상담 현장에까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 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이론연구(29%)였고, 그 다음이 성과연구(19%), 개관연구(12%), 성격 및 적응연구(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과-과정,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기타, 진로 및 적성 등에 관한 연구 주제는 모두 5% 미만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김성희(2002),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 김계원 등(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것이어서 과거나 현재 모두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자료수집 절차를 요하는 상담성과-과정의 통합연구,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진로 및 적성연구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박성희(2001)는 한국 상담이 상담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방면의 상담현상을 연구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개념의 틀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담심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주제가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성과-과정, 성과,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진로 및 적성 등으로 다양화되고, 특히 치료기제에 관한 연구인 상담 과정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기독교인(1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13%), 청소년(13%), 성인(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다양한 상담주제가 연구되었지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부부 및 가족, 상담자, 내담자, 군인은 일부 주제로 한정되었다. 기독교인 대상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성희(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의 소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신학대학원, 카톨릭대학원 등 종교대학원인 것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이 연구의 주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 소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는 없지만, 추후 상담현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내담자와 군인에 대한 연구가 1%로 아주 미비한 것은 인간중심접근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연구 결과와 활용도(Munley, 1974)와 연구결과의 일반화(이동혁, 유성경, 2000)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기독교인,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청소년 등 특정대상으로 편중되지 않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부부 및 가족, 상담자, 내담자, 군인 등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실제 상담과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90년대나 2000년대 모두 매우 드문

것은 국내 인간중심접근 연구자들이 반성할 점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가 현장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 상담이론으로서 자리를 넓혀갈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상담과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인, 다문화,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은 국내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들이 문헌고찰에 지나친 편중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행히 양적연구에 관한 연구들이 199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상담현장에서 상담실체가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보다 많이 장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상담실체의 책무성은 상담연구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으므로 상담실체 과정 및 성과를 연구주제로 삼아 상담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상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담실체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동혁, 유성경, 2000). 최근, 교육학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용주의적 관점의 통합연구 방법이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Denzin, 2010; Bryman, 2007; Johnson & Onwuegbuzie, 2004). 따라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상호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태도와 사고를 탈피하여 각 연구방법의 특징과 장점을 최적화하여 인간중심접근 연구의 영역과 내용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헌고찰 및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양·질적 혼합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문헌고찰이 56%로 높은 반면, 양적연구는 28%로 낮게 나타났고, 질적연구는 16%, 양·질적연구는 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간중

심접근 관련 연구의 경우 문헌고찰에 편중되어 이와 같은 질적연구와 양·질적연구들의 역할이 매우 적고, 미흡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소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량화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심층연구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또한 관찰이 부정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찰결과를 두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연구과정이 설명, 검증된다면 인간중심접근의 원리와 전략들의 개념적, 임상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난 질적연구와 양·질적연구의 경우에도 보다 엄격한 연구절차에 따른 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연구는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 나름의 체계와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김계현, 2000).

넷째, 학위논문에 수록된 논문의 수는 1970년대 2편, 1980년대 3편이던 것이 1990년대 29편으로 증가하여 그 이후로 2012년까지 83편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는 1970년대 1편, 1980년대 7편이던 것이 1990년대 21편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12년까지 17편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회지 연간 발간 회수의 증가와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등 여러 학회지로 인해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5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경향성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로서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인간중심접근의 발전과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담연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들을 사용하였다.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내용에 비추어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하여 사용하였지만,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다 타당한 기준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고, 학문적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접근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상담과정, 학업,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지각, 상담성과-과정, 상담자 훈련 및 슈퍼비전, 진로·적성, 척도개발, 다문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이론, 성과, 개관에 치중되어 있고, 진로·적성, 상담자 훈련·슈퍼비전이나 그와 관련한 연구 주제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론, 성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상담자 훈련이나 척도개발, 다문화 연구도 연구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주제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척도개발 그리고 상담개입, 처지 등 상담과정과 효과에 대한 분석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되 질 높고, 차별화된 방향으로 많은 연구물이 풍부하게 다루어 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이 없는 이론연구로서 대상이 있는 연구의 비중과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종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는 연구 수행의 편이성이나 자료수집의 용이성은 있지만, 연구결과에 일반화에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접근 관련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연령층과 내담자, 군인 그리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고령화로 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문화 가족과 노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대상이 있는 것과 연구대상 범위의 확대는 향후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질적연구와 양·질적 통합의 혼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간중심이론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문헌고찰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런 경향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이론들을 개관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문헌고찰 못지않게 상담과정 변화와 같은 질적 연구와 상담과정의 성과 그리고 변화를 제시하는 양·질적연구를 통합한 혼합적 연구들도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의 확대로 통계분석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상담 영역을 확장하고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고차적인 통계분석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이은숙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38.
- 김계현, 이재규, 심윤정 (2001). 국내 상담연구의 주제 분석-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BK21 IAPED 연구보고서 I-00-01.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성광 (1974). Carl R. Rogers의 相談이 牧會 相談에 끼친 影響.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2). 기독교상담연구의 내용분석: 1990년~2001년까지.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교육연구에서의 통합연구방법: 개념과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24(1), 305-328.
- 김인수 (1993). 인간중심 상담의 발전과정: 인본주의의 거두 Rogers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3, 41-48.
- 박성희 (2001).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박종민 (2006). 한국행정학 50년: 행정이론을 위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하계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5.
- 오제은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C. Rogers: A Way of Being). 서울: 학지사.
- 연문희 (2009). 미국 심리치료분야에서 Carl Rogers의 영향력. 인간이해, 30(2), 1-29.
- 윤호균 (1982).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 37-58.
- 이영희 (1997). 심리-사회적 갈등과 인간중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 이장호 (1995). 한국 인본주의 심리학의 현황과 과제. 심리과학, 4(1), 41-18.
- 이정명, 전미향, 전태옥 (2007). 인간중심표현예술치료(N. Rogers: The Creative Connection: Expressive Arts as Healing).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윤혜성, 주은선 (2010). 인간중심 상담수련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인간이해, 31(2), 141-166.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주은선, 이혜경, 주은지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한국적 인본주의상담 모형 모색-인본주의 상담자들의 자기-보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 주은선 (2009). 진정한 사람되기(On Becoming a Person). 서울: 학지사.
- 주은선 (2012). 인간중심 상담의 임상적 적용(Person-centred counselling in action).

- 서울: 학지사.
- 주찬순 (2006). 현대인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접근.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 한승호 (1963).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C.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서울: 지문각.
- 홍두승 (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Buboltz, W. C., Miller, M. Jr.,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96-503.
- Codding, P. A. (1987).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1977-1988. *Journal of Music Therapy*, 24, 195-202.
- Denzin, N. K. (2010). Moments, mixed methods, and paradigm dialogs. *Qualitative Inquiry*, 16, 419-427.
- Duam, C., Hill, C. E.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61-274.
- Greenberg, L., Elliott, R. Lietar, G. (1994). Research on Experiential Psychotherapy. In Bergin A. E. Garfield, S. L.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al Change* 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oward, K., April, J. (2005). The current status of Carl Rogers and the person-centered approach.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 42(1), Spr 37-51.
- James, M. R. (1985). Sources of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The first twenty years, 1964-1983. *Journal of Music Therapy*, 22, 87-94.
- Jason, H., Isabel, D., Kimberley, R., Oliver, T. W. (2007). Knowing what others know, Feeling what others feel a controlled of Empathy in psychotherapis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4), Apr.
- Jellison, J. A. (2000). A content analysis of Music research with disabled children and youth (1975-1999): Application in special education. *Disabled Children and Youth*, 199-264.
- Munlet, P. H. (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05-310.
- Robinson, F. P. (1970). The growth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85-387.

1차원고접수 : 2012.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3. 03. 15.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9.

Content Analysis of Person-centered Research in Korea: From 1977 to 2012

Eun Sun Joo

Hye Won Kim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rends in person-centered research of the past 35 years from 1977 to 2012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by looking at 163 journal articles on a year-by-year bases, based on research topics, subjects, methodology and year of publication. Results are shown in terms of research themes. Theoretical research accounts for the largest share at 29%, followed by outcome research, introductory research, personality & adjustment research, process research, and academic research.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he 'others' category which includes cases where subjects are unnecessary or unclear accounted for 30%, following in order by Christians,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children, teenagers and adult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ry review was by far the most common at 56%, while quantitative analysis accounted for 28%. Lastly, in terms of year of publication, 55% of research was published after 2000. This study looks at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such trend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erson-centered research in Korea.

Key words : *person-centered approach, Content analysis, trends, counseling psychology*